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김 우 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연구와도 일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좀 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서론

기업이 속해 있는 환경이 변화하면 노사관계도 바뀐다는 것은 Dunlop의 시스템적 노사관계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어 온 사실이다. 환경변화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는 생산양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 정보화를 통한 의사소통체계(communication system)의 변화일 수도 있으며, 규제완화, 민영화 등 사회제도의 변화일 수도 있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시장개방의 확대로 나타나는 국제경쟁의 변화일 수도 있다.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기업의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을 주로 기업의 내부구조와 기업을 둘러싼 국내의 제도적 환경에서 찾아왔다.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요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본 연구에 사용된 사업체패널자료를 제공해준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별 수출입 자료를 제공해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순찬박사, 연구조교로서 일한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신희우군에게 감사한다.

인 중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되어온 것으로는 외부세력과의 연대(원창희, 1999, 2000), 경기상황(이선·원창희, 2000), 사회적 여론(이선·유경준, 1997), 정부의 노사관계정책(김정한·권상술, 1997) 등이 있으나 이들 모두 국내적 요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국외적 환경 특히 세계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 노중기(2004), 조돈문(2003) 등은 세계화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발전,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세계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개방이나 세계화와 관련된 노사관계연구들은 대부분 특정국가나 특정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서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적어도 시장개방도와 같은 기업의 대외무역환경변수를 노사관계의 결정요인으로 포함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산업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업마다 대외경쟁에 관한 압박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대외경쟁압력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견될 수 있다. 하지만 대외경쟁압력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세계화가 진행되면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가 촉진되고, 소득 및 고용은 점점 더 불안해지며, 결과적으로는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장개방이나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는 시장개방이 임금, 고용,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어 있다 (Borjas and Ramey 1995, Currie and Harrison 1997, Davis and Haltiwanger 1991, Feliciano 2001, Hanson 2003, Johnson and Stafford 1993, Lang 1998, Lawrence and Slaughter 1993, Murphy and Welch 1991, Wood 1994). 따라서 세계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Winters, McCulloch and McKay(2004)는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 특히 실증적인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확대가 임금과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빈곤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Winters 등은 무역자유화가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가장 손쉬운 정책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p. 108). 따라서 적어도 Winters 등의 주장에 의거한다면 시장개방이 임금, 고용, 빈곤에 나쁜 영향을 주어 노사관계를 악화시켜왔거나, 앞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결정과 기업의 고용전략선택에 있어 국제경쟁의 심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무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금억제압력을 더 많이 받고, 노동유연화에 대한 더 강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일 가

능성도 존재한다. 즉, 시장개방이 많이 된 산업에 속한 기업은 세계시장진출의 가능성이 높고, 성장도 더 잘돼서 고용증가와, 임금증가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사관계는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경쟁이 심화될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사가 더욱 협력하게 되는 충격효과(shock effect)도 존재할 수 있다. 즉,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확대, 국제경쟁의 심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이기 보다는 경험적으로 판단될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시장개방이라는 측면을 기업의 고용전략선택이나 노사관계수준결정의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기업내 노사관계형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시장개방정도가 기업의 고용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제3장은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과 시장개방정도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제4장은 시장개방도가 기업의 고용전략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한다. 제5장은 시장개방정도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노사관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정도, 공동의사결정정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의를 담는다.

II.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개념적 틀

시장개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시장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선진국, 후진국 모두 고용과 임금이 증가할 것이며 시장개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기술과 지식의 전파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Hoon 2000). 시장개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대부분 후진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이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선진국의 선별적 시장개방으로부터 파생된다고 주장한다(Lee 1996. Singh and Zammit 2000).

최근 Frenkel and Kuruvilla(2002)는 한 국가의 노사관계를 결정짓는데 세 가지 주요한 논리가 있으며 이들 논리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나라의 노사관계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논리는 경쟁논리(logic of competition), 산업평화논리(logic of industrial peace), 고용-소득보호논리(logic of employment-income protection)로 구분되는데 이 중 어떤 논리를 선택하느냐는 다시 경제발전전략, 세계화의 강도, 노동조합의 힘, 노동시장의 특징,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다섯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Frenkel and Kuruvilla(2002)는 세계화의 강도가 높아지면 다른 두 논리에 비하여 경쟁

논리(logic of competition)가 강화되고 그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구조조정확대, 노동조합의 약화, 교섭의 분권화 등이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실업, 또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쟁논리의 강화로 인하여 노사갈등이 심화되면 고용-소득보호논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며, 산업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사관계제도의 개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세계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p. 392).

Sengenberger(1992)는 세계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은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노동비용을 낮추는 전략(Lower Labour Cost)이며, 두 번째 전략은 혁신(Innovation)전략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 ① 양보교섭-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임금 및 부가급여의 축소 등
- ② 노동시간의 변경 및 연장- 생산의 필요에 부응하는 노동시간의 변경 및 연장
- ③ 비정규직 고용의 사용-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직 등의 사용
- ④ 공장의 이전 또는 outsourcing- 노동비용이 적은 나라로 공장이나 생산의 이전.

(2) 혁신 전략:

- ① 노사의 공동결정의 확대- 노사의 의사결정을 생산적으로 통합
- ② 작업의 재구성- 근로자의 다기능화, 숙련화를 위한 작업의 재구성
- ③ 근로자의 직업훈련강화- 기업 내 또는 기업 외 직업훈련의 강화

Sengenberger(1992)는 노동을 하나의 비용으로 보는지 아니면 협력을 통한 혁신의 동반자로 보는지에 따라 기업의 전략선택이 달라지며¹⁾, 미래의 경제상황에서는 하드웨어나 기술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보다는 혁신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Frenkel and Kuruvilla(2002)와 Sengenberger(1992)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계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특히 개발도상국의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생각하듯이 세계화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과 노동의 유연화를 강화시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경쟁압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보다 혁신중심의 전략을 채택하여 좀 더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세계화

1) Sengenberger(1992)는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가는 기업이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영향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가는 경험적인 문제이며 나라마다, 시대마다, 산업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부경쟁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I. 자료 및 기초통계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노동연구원의 2002년 사업체패널조사이다.²⁾ 2002년 사업체 패널자료는 약 2,000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인사관리자, 노무관리자,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노사관계 제반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개방정도에 따른 기업의 고용전략의 선택과 노사관계수준의 결정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아직은 미약한 서비스 산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에 속한 기업만을 추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하여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고용전략을 분석하는데 996개, 노사관계수준을 분석하는데 922개의 기업정보가 사용된다.

1. 시장개방지표

시장개방정도의 지표로는 수입침투도($=\frac{\text{수입}}{\text{수입}+\text{생산액}}$), 무역의존도($=\frac{\text{수출}+\text{수입}}{\text{생산액}}$), 수출비중($=\frac{\text{수출}}{\text{생산액}}$)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은 산업별로 구축된다.³⁾ 산업별 수출(입)액에 대한 자료는 HS Code에 따른 제품별 수출입 자료를 산업별로 합한 것을 사용하며, 산업별 생산액은 광공업통계조사를 이용한다. 제조업은 중분류로 22개 산업으로 구분되며, 각 산업에 속한 기업은 같은 시장개방정도에 처해 있다고 가정한다.⁴⁾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이 모두 사용가능한 시장개방지표이지만 그 의미는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수입침투도는 외국 물건의 국내시장진입정도를 나타내며 국내 기업이 처해있는 경쟁압박의 정도를 잘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세 가지 지표 중 국내기업의 임금, 고용, 노사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출비

2) 2002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정보누락이 2001년에 비하여 비교적 적어서이며, 여성근로자비율을 계산하는데도 2002년 자료에서 표본손실이 더 적기 때문이다.

3) 수입침투도는 수입비중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의 정의를 따른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은 23개 중분류 산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분류 37번인 재생가공처리산업에 대한 수출입자료는 얻기 힘든 관계로 이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시켰다.

중은 그 산업의 외국시장진출 정도를 나타내며 역시 시장개방정도를 나타내지만 경쟁의 압력보다는 산업의 외부지향적인 성격과 대외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외 무역의존도는 수입침투도와 수출비중을 통합한 중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래 <표 1>은 2000-2002년의 연평균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을 나타낸 것이다.⁵⁾ 수입침투도를 중심으로 보면 경공업의 경우 목재 및 나무제품산업(37.4%)과 봉제, 의복, 모피제품산업(23.6%)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공업의 경우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산업(62.9%)과 코크스 및 석유정제산업(53.9%)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보통신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산업)도 상당 수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산업에 걸쳐 가장 수입침투도가 높은 산업은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산업으로 시장의 약 63%가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평균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

코드	업종명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5	음,식료품	8.2	17	12.9	21	4.0	20
16	담배제조업	9.6	16	15.5	20	4.8	19
17	섬유제품;봉제의복제외	18.7	12	104.3	4	81.3	2
18	봉제의복,모피제품	23.6	9	73.0	7	42.1	7
19	가죽,가방,신발	7.2	20	28.1	18	20.4	13
20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37.4	3	62.9	12	3.1	21
21	펄프,종이,종이제품	16.3	13	36.1	16	16.5	16
22	출판,인쇄,기록매체	2.4	22	4.8	22	2.3	22
23	코크스,석유정제제품,핵연료	53.9	2	143.6	2	26.7	11
24	화합물,화학제품	18.7	11	37.9	14	14.9	18
25	고무,플라스틱제품	15.7	14	66.7	9	48.1	6
26	비금속광물제품	26.5	6	62.9	11	26.7	12
27	제1차금속산업	21.1	10	46.3	13	19.5	14
28	조립금속제품	7.9	18	25.1	19	16.6	15
29	기타기계,장비	25.2	7	63.3	10	29.6	10
30	컴퓨터,사무용기기	24.0	8	155.4	3	83.7	1
31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31.4	4	78.0	6	31.2	9
32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28.3	5	97.4	5	57.8	4
33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2.9	1	223.8	1	53.6	5
34	자동차,트레일러	3.7	21	36.3	15	32.4	8
35	기타운송장비	7.7	19	67.9	8	59.5	3
36	가구,기타제품	15.4	15	34.3	17	16.0	17

주 : 평균은 2000년-2002년의 3년간 평균임.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은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은 이들 간의

5) 연평균을 사용한 이유는 특정 해에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2>를 보면 특히 수입침투도와 무역의존도, 수출비중과 무역의존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침투도와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둘 모두 시장개방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무역의존도, 수입침투도, 수출비중의 상관계수

상관계수			
	무역의존도	수출비중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1	0.636	0.865
수출비중		1	0.234
수입침투도			1

주: 상관계수는 연평균 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2. 시장개방정도에 따른 기초통계

이제 각 산업이 속한 시장개방정도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개방정도는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이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수입침투도를 이용하여 시장개방정도를 구분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3가지 지표를 모두 사용할 것이다.

시장개방정도는 수입침투도를 이용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다. 총 22개의 중분류 산업이 있으므로 시장개방이 많이 된 산업(수입침투도 상위 7개 산업), 시장개방이 잘 안된 산업(수입침투도 하위 7개 산업), 나머지 중간개방산업(수입침투도 중위 8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구분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평균은 <표 3>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수입침투도를 기준으로 시장개방을 3단계로 구분하였을 경우 무역의존도나 수출비중에 있어서도 시장개방정도가 역전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다. 수출비중에 있어서는 높은 개방산업과 중간 개방산업 사이에 격차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적어도 이들 산업과 낮은 개방산업 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는 비정규직 사용비중, 비정규직 사용여부, 다기능훈련 및 일반교육훈련여부이다. 비정규직 사용은 Sengenberger(1992)의 구분에 따르면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기능훈련 및 일반교육훈련은 혁신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시장개방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은 4.9%, 낮은 시장개방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그 비중은 8.7%로 시장개방이 더 많이 된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3년간 비정규직 사용추세와 향후 비정규직 고용계획에서도 나타나는데 시장개방이 높은 산업일수록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비정규직 사용계획에 있어서는 시장개방이 높은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고, 활용안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다기능훈련 및 일반교육훈련은 높은 시장개방산업에 속한 기업의 82.8%가 실시하는데 반해 낮은 시장개방산업에 속한 기업의 74.8%만이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통계만을 놓고 본다면 시장개방도가 높은 즉, 대외경쟁압력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혁신 전략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시장개방도와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변수	높은 시장개방	중간 시장개방	낮은 시장개방	변수정의
수입침투도	30.481(9.037)	19.023(2.510)	6.402(2.289)	%
무역의존도	88.069(37.603)	61.935(27.591)	24.251(15.663)	%
수출비중	39.831(15.020)	38.297(26.872)	17.357(15.874)	%
비정규사용비중	0.049(0.094)	0.059(0.126)	0.087(0.165)	비정규/총근로자
비정규사용여부	0.465(0.500)	0.409(0.492)	0.486(0.501)	사용=1, 비사용=0
다기능, 교육훈련여부	0.828(0.378)	0.695(0.461)	0.748(0.435)	훈련=1, 비훈련=0
중공업	0.973(0.162)	0.511(0.500)	0.605(0.490)	중공업=1, 경공업=0
노조유무	0.296(0.457)	0.305(0.461)	0.364(0.482)	노조=1, 비노조=0
여성근로자비중	27.098(25.056)	29.895(25.160)	27.457(22.784)	%
중소기업	0.741(0.439)	0.801(0.399)	0.769(0.422)	300인미만=1, 아니면=0
평균근속년수	6.811(4.565)	7.034(5.043)	7.248(5.594)	년
월평균이직률	2.935(4.657)	3.151(5.150)	3.091(4.769)	%
기업연령	20.721(13.617)	23.872(16.045)	22.797(16.126)	년
소유경영분리	0.135(0.342)	0.128(0.335)	0.115(0.320)	분리=1, 미분리=0
단기이익압력	0.165(0.372)	0.116(0.321)	0.126(0.332)	압력=1, 비압력=0
지난 3년간 비정규직 고용추세				
사용한적 없음	41.4%	43.3%	33.6%	
채용시작	9.4%	5.6%	6.6%	
비중유지	32.7%	33.7%	41.3%	
비중증가	4.7%	5.6%	7.3%	
비중감소	11.8%	11.9%	11.2%	
향후비정규직 고용계획				
확대계획	7.1%	10.9%	10.8%	
현행유지	45.5%	40.7%	47.6%	
축소계획	11.4%	13.1%	16.1%	
활용안함	36.0%	35.4%	25.5%	
산업수	7	8	7	개
기업수	297	413	286	개

주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하지만 비정규직 사용여부 또는 교육훈련실시여부와 시장개방정도와의 관계는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비정규직 사용여부는 낮은 시장개방산업에서 중간 시장개방산업으로 이동할 때는 낮아지다가, 중간에서 높은 시장개방산업으로 이동할 때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기능훈련 및 일반교육훈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표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시장개방도와 기업의 고용전략선택과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전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개방과 기업의 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시장개방이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중공업이 많고, 노조비중이 낮으며, 중소기업비중이 낮고, 평균근속년수가 다소 짧으며, 기업의 연령이 낮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많고, 단기이익의 압박을 받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개방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노조비중이 낮다는 것은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조조직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급속한 세계화가 지목되고 있는 것과도 일관성을 갖는다(김동원 2003). 시장개방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짧으며, 기업의 연령도 낮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소멸, 창출이 상대적으로 빈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많다는 것과 단기이익의 압박을 받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경쟁의 증가로 인해 합리적 경영의 필요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V. 시장개방도와 고용전략선택

1. 고용전략선택모형의 추정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과 혁신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노동절약적인 전략을 선택한다고 반드시 혁신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업체패널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래 <표 4>는 표본에 나타난 비정규직 사용여부와 다기능훈련 및 일반교육훈련여부에 따른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비정규직사용과 다기능 및 일반교육훈련실시 비중

비정규	훈련	실시안함	실시함
사용안함		156 (15.66%)	394 (39.56%)
사용함		93 (9.34%)	353 (35.44%)

<표 4>를 보면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도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전체의 35.44%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사용여부와 다기능훈련 및 일반교육훈련여부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0.086으로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두 전략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 ①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훈련은 하지 않는 전략,
- ② 혁신전략: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으며, 훈련을 실시하는 전략,
- ③ 혼합전략: (비정규직 사용, 훈련실시), 또는 (정규직 사용, 훈련 미실시)

<표 5>는 시장개방정도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고용전략이 3가지라고 보고 이들 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한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에서 기준전략은 혼합전략으로 정하였다.

다항로짓모형에서 임의의 변수 x 의 계수 β 는 기준전략에 비하여 대상전략을 선택할 상대적인 확률 차이를 말한다. 즉, 만약 $Y=1$ 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Y=2$ 가 혼합전략이라고 하면 $\beta = \frac{\partial \ln P(Y=1|x)}{\partial x} - \frac{\partial \ln P(Y=2|x)}{\partial x}$ 이 되며 따라서 $\beta > 0$ 이면 x 가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의 선택확률을 높이며, $\beta < 0$ 이면 x 가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혼합전략의 선택확률을 높이며, $\beta = 0$ 이면 x 가 증가할 때 두 선택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5>의 추정결과를 보면 시장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침투도, 무역의존도, 수출비중 등의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이 보다 더 개방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이나 또는 혁신전략 중 어느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연구와도 일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⁶⁾ 또한 위의 결과는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Feliciano(2001)는 관세인하로 인한 시장개방의 확대가 상대임금(relative wages)이나 상대고용(relative employment)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한 Lang(1998)은 시장개방이 임금을 약간 감소시켰으나,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5> 고용전략선택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수입침투도	-0.005 (0.012)	-0.002 (0.007)	-	-	-	-
무역의존도	-	-	0.003 (0.003)	-0.002 (0.002)	-	-
수출비중	-	-	-	-	0.006 (0.005)	-0.003 (0.003)
중공업	-0.321 (0.254)	0.546** (0.165)	-0.359 (0.246)	0.542** (0.161)	-0.282 (0.251)	0.512** (0.162)
노조	-0.288 (0.305)	-0.197 (0.173)	-0.273 (0.305)	-0.205 (0.173)	-0.270 (0.305)	-0.204 (0.173)
여성비중	0.010** (0.005)	0.002 (0.003)	0.010** (0.005)	0.002 (0.003)	0.010** (0.005)	0.002 (0.003)
중소기업	1.007** (0.371)	0.865** (0.192)	1.024** (0.372)	0.850** (0.193)	1.053** (0.374)	0.839** (0.194)
기업연령	0.004 (0.008)	0.007 (0.005)	0.005 (0.009)	0.006 (0.005)	0.006 (0.009)	0.006 (0.005)
소유경영분리	-0.335 (0.424)	0.104 (0.208)	-0.349 (0.425)	0.110 (0.208)	-0.363 (0.426)	0.112 (0.208)
단기이익압력	0.677** (0.310)	0.170 (0.207)	0.680** (0.310)	0.176 (0.207)	0.671** (0.310)	0.178 (0.207)
상수	2.638** (0.548)	-1.459** (0.314)	-2.873** (0.554)	-1.372** (0.323)	-3.026** (0.580)	-1.342** (0.335)
Log-Likelihood	-893.314		-892.206		-891.593	
표본수	996		996		996	

주 :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기준은 혼합전략임.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이나 혁신전략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기이익압력이 존재할수록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 속할수록 혁신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일 경우는 혼합전략에 비하여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혁신전략 모두를 선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계수의 크기를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선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고용전략의 선택에 있어 노조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고용전략은 주로 경영층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2.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기업의 고용전략은 노조유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시장개방도가 같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기업의 전략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노조유무가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이나 혁신전략 중 어느 한 가지 선택을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양보교섭 (concession bargaining)을 통하여 임금이나 고용이 유연화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유무에 따른 시장개방의 고용전략효과는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표 6>은 다항로짓모형을 노조유무별로 추정한 결과이다. 지면관계상 시장개방지표로 무역의존도를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만 본문에 제시하며 수입침투도, 수출비중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는 부록에 실는다.

<표 6> 노조-비노조부문별 고용전략선택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비노조부문		노조부문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무역의존도	0.00005 (0.003)	-0.002 (0.002)	0.011* (0.006)	-0.004 (0.004)
중공업	-0.203 (0.281)	0.822** (0.195)	-0.676 (0.532)	-0.040 (0.301)
여성비중	0.007 (0.005)	-0.0002 (0.004)	0.010 (0.011)	0.008 (0.006)
중소기업	0.844 (0.560)	0.634** (0.289)	1.167** (0.513)	1.001** (0.261)
기업연령	-0.005 (0.011)	0.003 (0.007)	0.020 (0.015)	0.006 (0.008)
소유경영분리	-0.181 (0.472)	-0.160 (0.275)	-1.135 (1.059)	0.536* (0.325)
단기이익압력	0.830** (0.366)	0.217 (0.274)	0.315 (0.621)	0.285 (0.329)
상수	-2.419** (0.747)	-1.222** (0.430)	-3.931** (0.963)	-1.356** (0.507)
Log-Likelihood	-626.206		-255.686	
표본수	678		318	

주 :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기준은 혼합전략임.

노조유무별로 구분한 <표 6>의 결과를 보면 비노조부문에서는 무역의존도가 기업의 노동비용절약전략이나 혁신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노조부문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절약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의 보호가 없을 경우 기업이 노동유연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며, 노조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한다.

노조가 있을 경우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의 결과는 노조와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일부 증명되고 있다. Lee and Kim(2004)은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외국의 문헌을 정리하면서 노동조합이 유연적인 채용방식(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을 확대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그들의 비정규직 사용모형의 추정결과에서도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사용여부와 비율 모두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표 6>에 나타난 노조부문에서의 무역의존도효과는 부록에 제시된 수입침투도와 수출비중을 사용한 모형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조가 있을 경우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다소 존재한다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비정규직의 사용과 교육훈련실시여부

비정규직 사용여부와 다기능 및 일반교육훈련여부로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혁신전략, 혼합전략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정규직 사용과 다기능 및 일반교육훈련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7> 비정규사용여부와 교육훈련여부의 로짓모형 추정결과

	비정규직 사용여부	비정규직 고용비중	교육훈련여부
무역의존도	0.002(0.002)	-0.001(0.003)	-0.002(0.002)
중공업	-0.164(0.152)	-0.106(0.083)	0.828(0.166)**
노조	0.342(0.165)**	0.052(0.090)	0.370(0.211)*
여성비중	-0.006(0.003)**	0.0004(0.002)	-0.011(0.003)**
중소기업	-1.048(0.182)**	-0.583(0.095)**	-1.046(0.268)**
기업연령	0.001(0.005)	-0.002(0.003)	0.008(0.006)
소유경영분리	0.002(0.205)	-0.008(0.109)	0.589(0.292)**
단기이익압력	0.094(0.197)	0.057(0.106)	-0.097(0.238)
상수	0.614(0.304)**	0.364(0.164)**	1.580(0.383)**
Log-Likelihood	-646.67	-292.53	-502.36
표본수	996	996	996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비정규직 고용비중은 Tobit으로 추정되었음.

수입침투도, 수출비중을 사용한 결과도 위의 결과와 질적인 차이가 없음.

위의 로짓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무역의존도가 비정규직 사용여부, 비정규직 고용비중, 훈련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개방도의 증가는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시키지 않으며 그렇다고 훈련을 강화시키지도 않는다는 다항로짓모형에서 얻어진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비정규직 사용 확률을 높이나 중소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사용 확률을 줄이는 결과는 Lee and Kim(2004)의 결과와 동일하다. 여성비중이 높으면 비정규직 사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이 많은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여기에 사용된 표본은 제조업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추측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수록 훈련실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사용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훈련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과 훈련실시가 배타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혁신전략, 혼합전략의 3가지 구분이 기업의 고용전략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시장개방도와 노사관계수준

지금까지 시장개방정도가 기업의 고용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업의 고용전략선택에 있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로 사용자의 의지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고용전략을 갖는가가 노사관계수준을 결정짓는 충분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교육훈련, 정규직을 지향하는 혁신전략을 추구하더라도 근로자나, 노조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실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기업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을 취하더라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사관계는 오히려 협조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전략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개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시장개방정도가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장개방도가 노사관계수준에 미치는 영향

노사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① 노사관계의 전반적 협력수준, ② 노사의 공동해결노력, ③ 노사간 정보의 공유, ④ 노사분규여부(노조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노사관계수준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에 대해서 시장개방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사업체패널조사는 노사관계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에게 묻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의 응답률은 노무관리자의 응답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을 노조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가 응답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근로자 대표가 응답한 사례 중 60.6%가 노조가 없는 경우이며, 근로자 대표가 응답하지 않은 사례 중 노조가 있는 경우도 2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응답결과를 통하여 노사관계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표 8>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모형에 대한 로짓추정결과이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변수로는 기업의 고용전략 선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이 선택되었으며 이 밖에 당기순이익비율 등 다른 변수도 포함시켜 보았으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표 8>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무관리자 응답			근로자대표 응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30** (0.008)	-	-	0.006 (0.009)	-	-
무역의존도	-	0.004* (0.002)	-	-	-0.001 (0.003)	-
수출비중	-	-	0.001 (0.003)	-	-	-0.003 (0.004)
중공업	0.033 (0.178)	0.166 (0.173)	0.191 (0.175)	-0.340 (0.236)	-0.292 (0.228)	-0.316 (0.229)
노조	-0.274 (0.195)	-0.281 (0.194)	-0.293 (0.193)	-0.673** (0.221)	-0.683** (0.222)	-0.686** (0.221)
여성비중	0.005 (0.004)	0.006* (0.004)	0.007* (0.004)	-0.002 (0.004)	-0.001 (0.004)	-0.001 (0.004)
중소기업	0.418** (0.207)	0.435** (0.206)	0.420** (0.207)	-0.059 (0.232)	-0.071 (0.233)	-0.090 (0.235)
기업연령	0.010* (0.006)	0.011** (0.006)	0.010* (0.006)	0.0005 (0.007)	0.0005 (0.007)	0.00002 (0.007)
소유경영분리	0.800** (0.280)	0.787** (0.279)	0.798** (0.279)	0.254 (0.286)	0.257 (0.286)	0.266 (0.286)
단기이익압력	0.138 (0.233)	0.136 (0.232)	0.150 (0.232)	0.040 (0.271)	0.055 (0.271)	0.060 (0.271)
상수	-0.183 (0.342)	-0.017 (0.348)	0.165 (0.357)	1.183** (0.414)	1.299** (0.426)	1.385** (0.447)
Log-Likelihood	-504.825	-510.025	-511.608	-326.057	-326.223	-326.062
표본수	922	922	922	528	528	528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는 노사관계의 협력수준인데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협력적” 또는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1, “매우 대립적”, “대립적”,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 0임.

추정결과를 보면 노무관리자의 응답에서 수입침투도와 무역의존도의 계수가 양수이며 90%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의 확대가 노사관계를 자본주도형으로 재편시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은 강해질 것이며 노사관계도 나빠질 것이라는 가설보다는 국제경쟁이 심화될수록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대표의 응답에서는 시장개방지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확대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을 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노사관계가 협력적이지 않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근로자대표가 응답한 경우에 그 효과가 더 크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노사관계가 협력적이지 않다고 응답하는 것은 사업장의 실제 노사관계수준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 만큼 노조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여성비중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일수록, 기업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수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한다는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시장개방이 노사공동해결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9>는 노사공동해결노력에 대한 로짓추정결과이다. 시장개방도가 노사공동해결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관리자의 응답에서는 수입침투도가 높을수록, 근로자대표의 응답에서 수입침투도와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모형에서도 시장개방지표가 노사공동해결노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면관계상 시장개방도가 노사간 정보공유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는 부록에 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앞의 두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이 정보공유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이며, 적어도 노사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노사공동해결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무관리자 응답			근로자대표 응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20** (0.009)			0.019* (0.010)		
무역의존도		0.002 (0.002)			0.005* (0.003)	
수출비중			-0.001 (0.004)			0.006 (0.005)
중공업	0.185 (0.188)	0.280 (0.184)	0.278 (0.186)	-0.339 (0.249)	-0.248 (0.242)	-0.171 (0.241)
노조	0.104 (0.216)	0.093 (0.215)	0.083 (0.215)	0.027 (0.238)	0.037 (0.238)	0.027 (0.238)
여성비중	0.005 (0.004)	0.006 (0.004)	0.006 (0.004)	-0.003 (0.005)	-0.002 (0.005)	-0.002 (0.004)
중소기업	0.444** (0.226)	0.449** (0.226)	0.431* (0.227)	-0.256 (0.255)	-0.221 (0.256)	-0.212 (0.258)
기업연령	0.014** (0.006)	0.014** (0.006)	0.013** (0.006)	-0.0003 (0.007)	0.001 (0.007)	0.001 (0.007)
소유경영분리	0.886** (0.317)	0.884** (0.316)	0.898** (0.317)	-0.151 (0.295)	-0.174 (0.295)	-0.178 (0.295)
단기이익압력	-0.544** (0.224)	-0.539** (0.224)	-0.527 (0.224)	0.282 (0.305)	0.274 (0.305)	0.287 (0.304)
상수	0.032 (0.366)	0.206 (0.373)	0.362 (0.385)	1.165** (0.441)	1.096** (0.454)	1.114* (0.469)
Log-Likelihood	-457.687	-460.233	-460.503	-298.719	-298.842	-299.633
표본수	922	922	922	528	528	528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는 공동해결노력인데 “노사가 회사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0임.

2.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형성되는 노사관계는 노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결정식을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⁷⁾ <표 10>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모형을 노조유무로 구분하여 로짓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노조유무에 따라 시장개방도가 협력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노조부문에서는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어느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노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비노조부문에서는 수입침투도가 높을 경우에만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무관리자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하겠다.

7) 이하의 분석결과는 노무관리자의 응답을 대상으로 한 것임.

<표 10> 노조유무별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조부문			비노조부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53** (0.015)	-	-	0.019** (0.010)	-	-
무역의존도	-	0.0134** (0.005)	-	-	0.001 (0.002)	-
수출비중	-	-	0.013* (0.007)	-	-	-0.004 (0.004)
중공업	-0.410 (0.331)	-0.196 (0.323)	-0.064 (0.318)	0.235 (0.214)	0.325 (0.209)	0.292 (0.213)
여성비중	0.006 (0.007)	0.006 (0.007)	0.007 (0.007)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중소기업	0.680** (0.279)	0.775** (0.280)	0.766** (0.279)	-0.060 (0.353)	-0.067 (0.352)	-0.105 (0.353)
기업연령	0.014* (0.009)	0.017* (0.009)	0.017* (0.009)	0.004 (0.008)	0.004 (0.008)	0.002 (0.008)
소유경영분리	0.621* (0.387)	0.545 (0.384)	0.538 (0.382)	1.087** (0.445)	1.095** (0.444)	1.109** (0.444)
단기이익압력	-0.059 (0.356)	-0.084 (0.353)	-0.018 (0.349)	0.328 (0.327)	0.309 (0.326)	0.321 (0.326)
상수	-0.751 (0.511)	-0.798 (0.530)	-0.600 (0.527)	0.443 (0.492)	0.677 (0.496)	0.949* (0.517)
Log-Likelihood	-162.934	-165.092	-167.396	-335.912	-337.900	-337.495
표본수	289	289	289	633	633	633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의 정의는 앞과 동일함.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대외경쟁의 압박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용자의 건설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경영층에 전달하는 채널로서 작동할 수 있으며, 경영층은 자신의 의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기업내 노조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

노조유무별 노사공동해결에 관한 결과는 노조와 비노조부문 모두 시장개방도가 증가하면 노사공동해결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4>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좀 더 흥미로운 노조유무별 노사정보공유에 대한 로짓 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1> 노조유무별 노사정보공유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조부문			비노조부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27* (0.016)	-	-	-0.004 (0.008)	-	-
무역의존도	-	0.007 (0.005)	-	-	-0.003 (0.002)	-
수출비중	-	-	0.007 (0.007)	-	-	-0.008** (0.004)
중공업	0.048 (0.357)	0.158 (0.348)	0.232 (0.346)	0.291 (0.205)	0.286 (0.200)	0.193 (0.204)
여성비중	0.011 (0.008)	0.010 (0.008)	0.011 (0.008)	0.003 (0.004)	0.003 (0.004)	0.003 (0.004)
중소기업	0.207 (0.303)	0.261 (0.304)	0.261 (0.305)	-0.330 (0.347)	-0.352 (0.348)	-0.404 (0.351)
기업연령	0.028** (0.010)	0.030** (0.010)	0.031** (0.010)	0.004 (0.007)	0.003 (0.007)	0.001 (0.007)
소유경영분리	1.285** (0.516)	1.251** (0.515)	1.244** (0.515)	0.717** (0.364)	0.737** (0.365)	0.745** (0.366)
단기이익압력	-0.061 (0.396)	-0.069 (0.397)	-0.026 (0.395)	-0.602** (0.266)	-0.599** (0.267)	-0.579** (0.267)
상수	-0.544 (0.548)	-0.615 (0.574)	-0.524 (0.578)	1.013** (0.473)	1.198** (0.481)	1.399** (0.508)
Log-Likelihood	-141.453	-141.734	-142.296	-364.510	-363.408	-362.534
표본수	289	289	289	633	633	633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의 정의는 앞과 동일함.

<표 11>을 보면 노조부문에서는 시장개방도(수입침투도)가 높아지면 노사간 정보공유 수준이 높아지는데, 비노조부문에서는 시장개방도(수출비중)가 높아지면 오히려 정보공유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조가 존재할 경우 시장개방에 대해 노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적으로 대응하지만, 노조가 없는 경우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조가 있을 경우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도가 노사분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사분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부문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표 12>를 보면 수입침투도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실제로 노사분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시장개방의 확대가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이끈다는 위의 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표 12> 노사분규여부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조부문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37* (0.022)	-	-
무역의존도	-	-0.004 (0.008)	-
수출비중	-	-	0.008 (0.011)
중공업	0.838 (0.593)	0.701 (0.586)	0.793 (0.609)
여성비중	-0.023 (0.015)	-0.023 (0.015)	-0.027* (0.015)
중소기업	-0.715* (0.444)	-0.766* (0.444)	-0.675 (0.450)
기업연령	-0.016 (0.013)	-0.017 (0.014)	-0.015 (0.014)
소유경영분리	-0.063 (0.523)	-0.045 (0.518)	-0.096 (0.519)
단기이익압력	0.818* (0.466)	0.769 (0.464)	0.677 (0.460)
상수	-1.265 (0.807)	-1.486* (0.863)	-2.072** (0.939)
Log-Likelihood	-82.225	-83.603	-83.499
표본수	289	289	289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는 노사분규발생여부인데 “지난해 노사분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예”로 응답한 경우 1,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임.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선택 면에서 살펴보면 시장개방도가 증가할수록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연구와도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겠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작업과정을 통제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며, 노사관계를 자본주도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1996). 이러한 시도를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은 강해질 것

이며 결과적으로 노사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경쟁이 심화될수록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박태주(2003)는 아일랜드의 성공을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이 역시 국제경쟁의 심화 속에서 노사협력이 강화되어 위기를 극복한 한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확대, 국제경쟁의 심화가 반드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전자보다는 후자를 지지하고 있다. 즉,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시장개방이 우려하는 것만큼 기업의 고용전략이나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시장개방이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에 속한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례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경향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장개방이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건설적인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은 2002년 한 해의 사업체패널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 시장개방의 차이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앞으로 사업체패널조사가 축적되고, 또 다른 자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 분야의 후속연구들은 세계화 속에서 노사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동원 편(2003),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 노중기(2004), 「세계화와 노동체계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0권 제1호. pp. 147-186.
- 박태주(2003), 『세계화와 노사관계: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경험에 대한 평가』, 한국 산업연구원.
- 조돈문(2003),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의 노사관계」, 『산업노동연구』 제9권 제1호. pp.1-37.
- 원창희(1999), 「노사분규 원인과 효과적 예방기법」,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pp.141-164.
- 원창희(2000),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적 수준의 결정요인과 과제」,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1호. pp. 27-46.
- 이선·원창희(2000), 「2000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 노사관계에 관한 토론회 발표 본문, 한국노동교육원.
- 이선·유경준(1997), 『1996년 임금교섭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한·권상술(1997), 「제조업의 단체교섭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산업관계연구』 제7권. pp. 33-84.
- Borjas, G. and Ramey, V.(1995), "Foreign Competition, Market Power, and Wag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v), pp. 1075-110.
- Currie, J. and Harrison, A.(1997), "Sharing the Costs: The Impact of Trade Reform on Capital and Labor in Morocco."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3, Pt. 2, pp. S44-S71.
- Davis, S. and Haltiwanger, J.(1991), "Wage Dispersion between and within U.S. manufacturing Plants, 1963-1986."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acroeconomics*, pp. 115-80, Washington, D.C.
- Davis, S., Haltiwanger, J. and Schuh, S. (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The MIT Press, Cambridge and London.
- Feliciano, Z.(2001), "Workers and Trade Liberalization: The Impact of Trade Reforms in Mexico on Wages and Employmen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5, No. 1 (October), pp. 95-115.
- Frenkel, S. and Kuruvilla, S.(2002), "Logics of Action, Globalization and Changing

- Employment Relations in China, Indi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5, No. 3. pp. 387-412.
- Hanson, G. H.(2003), "What Has Happened to Wages in Mexico Since NAFTA? Implications for Hemispheric Free Trade", NBER Working Paper 9563.
- Hoon, H. T.(2000), *Trade, Jobs and Wages*,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ublishing Ltd.
- Johnson, G. and Stafford, F.(1993),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Real W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83, No. 2, pp. 127-30.
- Lang, K.(1998),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Wages and Employment: The Case of New Zealand."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6, No.43, pp. 792-814.
- Lawrence, R. and Slaughter, M.(1993), "Trade and U.S. Wages: Great Sucking Sound or Small Hiccup?"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acroeconomics*, Vol. 2, pp. 115-80, Washington, D.C.
- Lee, E.(1996), "Globalization and Employment: Is Anxiety Justified?",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5, No. 5. pp. 485-497.
- Lee, I. and Kim, D. B.(2004), "The Union and the Use of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in Korea: Evidence from an Establishment Surv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exibility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 Murphy, K. and Welch, F.(1991),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Wage Differentials." In Marvin Kostner, ed., *Workers and Their Wages: Changing Patterns in the U.S.* Washington, D.C.: AEI Press.
- Sengenberger, W.(1992), "Intensified Competition,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Industrial Relation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1, No. 2. pp. 139-153.
- Singh, A. and Zammit, A.(2000), *The Global Labour Standards Controversy: Critical Issues for Developing Countries*, Geneva: South Centre.
- Winters, A., McCulloch, N. and McKay, A.(2004), "Trade Liberalization and Poverty: The Evidence so fa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LII, pp. 72-115.
- Wood, A.(1994), *North-South Trade, Employment and Inequality: Changing Fortunes in a Skill-Driven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부표

<부표 1> 노조-비노조부문별 고용전략선택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비노조부문		노조부문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수입침투도	-0.016 (0.014)	-0.001 (0.008)	0.030 (0.023)	-0.008 (0.014)
중공업	-0.129 (0.287)	0.823** (0.199)	-0.810 (0.571)	-0.019 (0.311)
여성비중	0.007 (0.005)	-0.0004 (0.004)	0.013 (0.010)	0.008 (0.006)
중소기업	0.816 (0.560)	0.653** (0.288)	1.115** (0.510)	1.031** (0.260)
기업연령	-0.005 (0.011)	0.004 (0.006)	0.018 (0.015)	0.006 (0.008)
소유경영분리	-0.167 (0.471)	-0.167 (0.275)	-1.039 (1.056)	0.515 (0.323)
단기이익압력	0.820** (0.367)	0.210 (0.274)	0.305 (0.619)	0.274 (0.328)
상수	-2.155** (0.743)	-1.325** (0.421)	-3.741** (0.944)	-1.460** (0.489)
Log-Likelihood	-625.875		-257.003	
표본수	678		318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기준은 혼합전략임.

<부표 2> 노조-비노조부문별 고용전략선택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비노조부문		노조부문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비용절약전략	혁신전략
수출비중	0.003 (0.006)	-0.004 (0.004)	0.013 (0.009)	-0.004 (0.006)
중공업	-0.170 (0.286)	0.788** (0.196)	-0.444 (0.546)	-0.089 (0.299)
여성비중	0.007 (0.005)	-0.0003 (0.004)	0.013 (0.010)	0.008 (0.006)
중소기업	0.869 (0.562)	0.615** (0.290)	1.209** (0.516)	0.999** (0.263)
기업연령	-0.004 (0.011)	0.003 (0.007)	0.020 (0.015)	0.005 (0.008)
소유경영분리	-0.191 (0.473)	-0.160 (0.275)	-1.185 (1.061)	0.535* (0.326)
단기이익압력	0.822** (0.366)	0.222 (0.274)	0.331 (0.619)	0.276 (0.328)
상수	-2.590** (0.770)	-1.155** (0.448)	-3.956** (1.013)	-1.401** (0.512)
Log-Likelihood	-625.717		-256.674	
표본수	678		318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기준은 혼합전략임.

<부표 3> 노사정보공유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무관리자 응답			근로자대표 응답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04 (0.008)			0.017* (0.009)		
무역의존도		-0.001 (0.002)			0.003 (0.002)	
수출비중			-0.004 (0.003)			-0.004 (0.004)
중공업	0.217 (0.176)	0.246 (0.171)	0.210 (0.174)	-0.296 (0.224)	-0.192 (0.215)	-0.196 (0.216)
노조	0.144 (0.202)	0.136 (0.202)	0.133 (0.202)	0.092 (0.217)	0.090 (0.214)	0.065 (0.214)
여성비중	0.005 (0.003)	0.006* (0.003)	0.006* (0.003)	-0.003 (0.004)	-0.002 (0.004)	-0.002 (0.004)
중소기업	-0.021 (0.220)	-0.028 (0.221)	-0.048 (0.222)	-0.252 (0.227)	-0.241 (0.227)	-0.300 (0.230)
기업연령	0.014** (0.006)	0.014** (0.006)	0.013** (0.006)	-0.006 (0.007)	-0.005 (0.007)	-0.006 (0.007)
소유경영분리	0.874** (0.295)	0.882** (0.295)	0.891** (0.296)	-0.126 (0.270)	-0.140 (0.269)	-0.114 (0.269)
단기이익압력	-0.395* (0.217)	-0.389* (0.217)	-0.382* (0.217)	0.572** (0.277)	0.578** (0.277)	0.611** (0.277)
상수	0.327 (0.343)	0.461 (0.351)	0.563 (0.368)	0.625 (0.395)	0.692* (0.405)	1.019** (0.425)
Log-Likelihood	-511.695	-511.710	-511.324	-347.281	-348.696	-348.842
표본수	922	922	922	528	528	528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는 정보공유수준인데 “노사관계가 정보를 공유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0임.

<부표 4> 노조유무별 노사공동해결에 대한 로짓모형 추정결과

	노조부문			비노조부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수입침투도	0.026 (0.016)	-	-	0.017* (0.010)	-	-
무역의존도	-	0.010* (0.005)	-	-	-0.001 (0.003)	-
수출비중	-	-	0.013 (0.008)	-	-	-0.006 (0.004)
중공업	-0.178 (0.368)	-0.094 (0.363)	0.003 (0.361)	0.341 (0.220)	0.427** (0.216)	0.364* (0.220)
여성비중	0.012 (0.009)	0.011 (0.009)	0.011 (0.009)	0.002 (0.004)	0.003 (0.004)	0.003 (0.004)
중소기업	0.554* (0.311)	0.627** (0.313)	0.645** (0.315)	0.263 (0.347)	0.244 (0.346)	0.194 (0.348)
기업연령	0.016* (0.010)	0.019* (0.010)	0.020** (0.010)	0.009 (0.008)	0.008 (0.008)	0.007 (0.008)
소유경영분리	1.020** (0.483)	0.974** (0.484)	0.951** (0.483)	0.821* (0.422)	0.846** (0.422)	0.871** (0.424)
단기이익압력	-0.448 (0.374)	-0.489 (0.377)	-0.455 (0.374)	-0.562** (0.285)	-0.572** (0.285)	-0.556* (0.285)
상수	-0.026 (0.556)	-0.214 (0.586)	-0.183 (0.587)	0.326 (0.499)	0.633 (0.502)	0.928* (0.528)
Log-Likelihood	-137.839	-137.414	-137.769	-317.371	-318.768	-317.716
표본수	289	289	289	633	633	633

주: **는 95%에서 유의. *는 90%에서 유의
 종속변수의 정의는 앞과 동일함.